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새판짜기’ 본격화

대표이사·부사장 등 임원 10명 교체 인사 단행
생산직 사원 대상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받아
새 대표 ‘올드보이’ 거론...혁신·변화 역행 우려

금호타이어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새판 짜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비롯, 10명의 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생산직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도 받기로 했다. 내년 사업계획이 나오고 팀장급에 대한 후속 인사도 이번 주 예정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후임 대표이사 인사를 앞두고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문경영인 영입 등 혁신과 변화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희망퇴직·임원 교체, 체질 개선에 속도 붙을까=금호타이어는 10일부터 오는 14

일까지 생산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희망퇴직은 경영 위기 상황인 지난 2월에도 실시했지만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를 새 주인으로 맞은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악화일로의 경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희망퇴직자에게는 18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위로금 명목으로 18개월분의 임금을, 1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0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또 정년까지 3년 이내 남았으면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정년까지 8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최대 18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대표이사와 부사장, 8명의 임원을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기존 김종호 대표

이사는 지난 6일 이사회에서 물러났고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전대진 부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 임원 8명도 새롭게 교체했다.

또 같은 날 퇴임한 중국 총괄 부사장 대신, 지난 2013년까지 금호타이어에 근무하면서 중국에서 법인장, 마케팅·물류담당을 맡았던 ‘중국통’ 인 조장수 전 금호타이어 전무를 중국본부장으로 영입했다.

하지만 내년이 새판의 설계도를 그리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중국 본부장에 이어 후임 대표이사 인선을 앞두고 금호타이어에 몸담았던 ‘올드보이’들이 다시 거론되면서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노조는 더블스타로 인수된 이후 경영정상화가 미흡하며 경영진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하나=금호타이어는 12일 오전 사업설명회를 열고 노조를 상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9일 예정

됐다가 불투명한 대외 환경으로 인해 행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미뤄졌던 것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안팎에서는 최근 3분기 금호타이어의 영업 손실 폭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61.6%, 전 분기에 비해 200.0%나 커졌다는 점에서 악화 일로인 경영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2분기만 해도 영업 손실 규모가 지난해 동기(506억7900만원) 대비 감소했다가 3분기에 실적 악화로 돌아선데다,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실적 부진 여파, 미·중 무역 전쟁, 유럽 영업망 붕괴 등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악화된 해외 판매실적을 개선할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어떤 새해 계획이 나올 지 관심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52.97 (-0.82) ↓ 금리 (국고채 3년) 1.79 (-0.01)
↓ 코스닥 661.01 (-9.38) ↑ 환율 (USD) 1130.10 (+3.60)



‘2018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광주국세청 정부물품관리 평가 ‘최우수’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은 조달청이 주관하는 ‘2018년 정부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달청은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05년부터 매년 각 중앙관서 및 산하 22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절감, 물품관리 및 활용, 정책평가 등 분야와 이에 따른 세부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평가에서 물품관리 모든 분야와 세부지표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철저한 재물조사를 통한 불용물품 관리전환 및 내용 연수 연장사용 등 물자절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환 청장은 “편안한 납세환경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국가재정 조달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인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정부물품 구매와 관리·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11일 오전 북구 지아동에서 신입직원들과 함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연탄 나눔 봉사

조손가정에 1000장 배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11일 오전 북구 지아동에 위치한 조손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쌀쌀한 겨울 날씨 속에 송중욱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지역사랑봉사단과 신입직원 60여명은 사랑의 연탄 1,000장을 창고에 옮겨 쌓았다. 또 조손가정을 위한 방문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온수매트와 겨울 이불, 패딩 점퍼를 선물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앞서 조족우산어린 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500만원을 전달하면서 추운 겨울 나눔 봉사의 따뜻한 의미를 더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현대차그룹 7조6000억 투입 수소차 활성화

2030년까지 50만대 생산...글로벌 수소 경쟁력 선점

현대차그룹이 수소차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소차 엔진’ 양산 공장을 짓고 글로벌 수소 리더십을 강화, 친환경차 부문에서 경쟁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일각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현대차의 기존 투자 행태와 비교하는 분위기도 일췌하다.

현대차그룹은 11일 충북 충주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열린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 기공식에서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연간 50만대 규모의 수소전기차(FCEV) 생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중장기 수소차 로드맵을 제시했다.

제2공장 신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간 3000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능력이 오는 2022년까지 4만대로 늘어날 계획이다.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인 수소 연료전지시스템(연료

전지 스택)은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충주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특히 ‘FCEV 비전 2030’을 통해 수소전기차 50만대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수소차 로드맵은 오는 2030년까지 124곳의 주요 부품 협력사와 연구·개발(R&D)과 설비 확대에 모두 7조6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는 게 핵심으로, 투자가 실현되면 2030년까지 신규 고용은 모두 5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당장,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2년간 3000억원을 투자, 1300명을 신규 채용해 현재 연간 3000대 규모인 수소전기차 생

산 능력을 2020년 1만1000대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현대차그룹은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연료전지시스템을 외부에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이날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상용화한 현대차그룹은 이제 수소전기차를 넘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과 현대차그룹이 머지않아 다가올 수소 경제라는 글로벌 에너지 변화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신혼부부 빚 1년새 1000만원 늘어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 결과

광주·전남 신혼부부가 제도권 금융업체에서 끌어다 쓴 빚이 1년 새 10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빚이 있는 광주지역 신혼부부 비중은 83.7%로, 1년 전(81.8%)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작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 5년 이내의 국내 거주 부부(이하 신혼부부) 중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제3금융권·사채·기업대출 등 제외)이 있는 경우로, 전국 평균(83.4%)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계빚이 있는 전남지역 신혼부부 비

중은 81.1%로, 1년 전(81.4%)보다 다소 줄었다.

가계대출이 있는 부부의 대출금 잔액 중앙값은 광주지역의 경우 7533만원으로 1년 전(6400만원)보다 1133만원이 늘었다. 전남도 5863만원으로 전년도(5098만원)보다 증가했다.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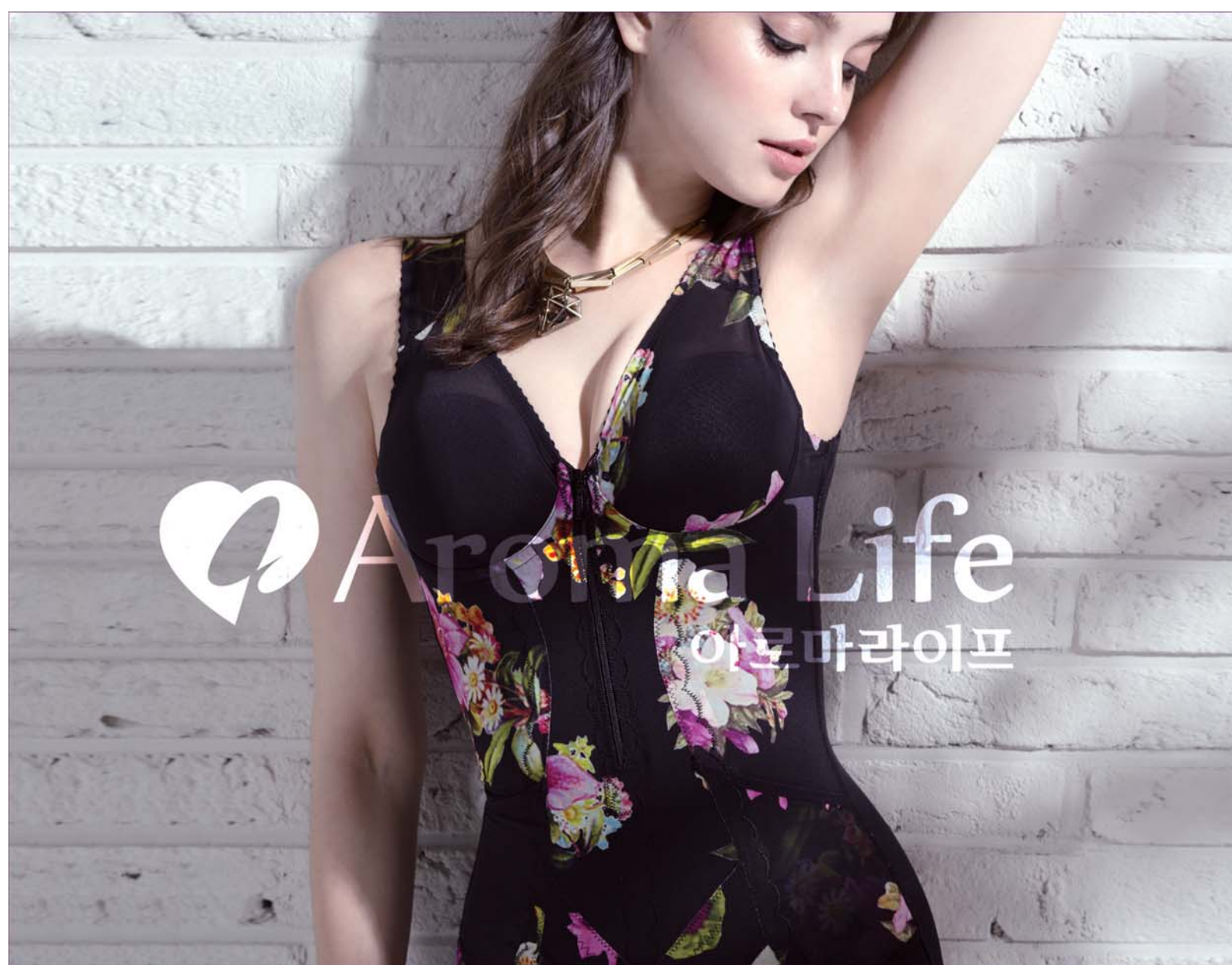
대출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광주지역 신혼부부 비중은 늘어난 반면, 1억원 미만 부부 비중은 감소했다.

지난해 대출 잔액이 1~2억원 이상인 부부의 비중은 광주 25.2%, 전남 22.2%로, 1년 전 비중(광주 21.7%, 전남 19.1%)보다 높아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 상품상 수상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PREMIUM BRAND AWARD WINNER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완적와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